

전쟁부나비들의 미련한 불장난

남조선호전광들이 윤석열의 《대통령》취임과 때를 같이하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연이어 벌여놓고있다.

공개된바와 같이 얼마전 남조선호전광들은 미해군과 조선동해수역에서 연합군사훈련을 벌여놓고있다.

그 무슨 그 누구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벌여놓은 이 전쟁불장난에는 미국과 남조선의 이지스 구축함

합과 비행대, 구축함 등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한편 남조선호전광들은 지난 9일부터 두주일간 미국과의 대규모적인 연합군사훈련이라는것도 감행하였다.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조선반도비행훈련》)이라는 명칭을 달고 벌인 이 훈련에는 남조선공군과 남조선강제 미공군 그리고 주일미군사령부의 각종 전투기 90여대가 동원되어 전쟁불장난을

일삼았다.

남조선호전광들이 윤석열의 집권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과 함께 연이어 북침전쟁불장난을 벌이고있는것은 윤석열보수 《정권》의 호전적정체를 그대로 드러내었으며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를 파자고 《정권》때보다 더 험악한 국면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대결장동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공화국은 이미전에 남조선이 자기

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었다. 또한 남조선호전세력의 군사적대결책동이 초래할 후과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핵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대결을 삼가할것을 엄숙히 경고하였다. 하지만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남조선호전광들은 공화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외세와 함께 동족을 겨냥한 전쟁불장난을 하느라 땅, 바다에서 그칠 사색이 없이 광란적으로 벌이고있다. 이것은 윤석열을 비롯한



남조선당국자들과 군부것들의 머리속에 오직 동족에 대한 적의와 동족과 힘으로 대결하겠다는 야망만이 팍 들어차있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마 남조선호전광들은 그 누구에 대한 《선제타격》방상을 실천에 옮기려는 기도밑에 외세와 결탁하여 북침전쟁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는것같은데 참으로 어리석다 하지 않을수 없다. 객은 닭알도 청바위를 깨뜨리는것과 같은 우둔하고 미련한 짓거리에 실로 아연함을 금할수 없다.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모든 도전을 선제적으로 제압분쇄할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필승불패의 강국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끔찍한 말로써 퍼려져든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불장난을 당장 걸어치우는것이 좋을것이다.

남조선의 적대세력들의 모든 도전을 선제적으로 제압분쇄할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필승불패의 강국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끔찍한 말로써 퍼려져든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불장난을 당장 걸어치우는것이 좋을것이다.

카멜레온도 무색케 할 변신놀음

남조선의 광주시에서 광주인민봉기가 일어난 5월 18일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 진행되었다.

주목되는것은 이때까지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을 달갑지 않게 여기던 보수패당이 이번 행사에 대대적으로 참가한것이다.

로 여기고있는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 민심을 끌어당겨 《민주세력의 뿌리》를 흔들어놓는것과 함께 당면한 6월 지방자치선거에서 어떻게 하나 이겨보려는 흥심의 발로이다. 정말 뻔뻔하기란 양몰이와 밀구멍같은 음흉하리란 더 말할것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수 없다.

고 덕의 열매를 따먹으려 하는것처럼 어리석은것은 없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아무리 얼굴에 미소를 짓고 《5월정신》에 대해 떠들어대도 민심은 절대로 속일수 없으며 인민의 저주와 버림을 받고 력사의 무덤에 처할 운명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고 덕의 열매를 따먹으려 하는것처럼 어리석은것은 없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아무리 얼굴에 미소를 짓고 《5월정신》에 대해 떠들어대도 민심은 절대로 속일수 없으며 인민의 저주와 버림을 받고 력사의 무덤에 처할 운명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마 전두환역도 《영웅》으로 치켜세웠으며 광주벌사들의 낮이 어린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못하게 하여못해 잔치집에서 부르는 《방아타령》을 연주하게 하려고 비열하게 책동해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자들이 이번엔 광주인민봉기를 기념하는 행사에 집단적으로 참가하여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5월정신은 우리모두의것》이니, 《5월정신은 모두의 상징》이니 하고 떠벌이며 광주인민봉기의 정신을 이어 사회의 민주화실현에 적극 나설것처럼 돌아왔으니 가히 여론의 주목을 받을만도 하다.

그러만 실지 광주인민봉기를 가장 악랄하게 헐뜯고 광주항쟁용사들을 모독하던 보수패당이 5.18의 지지자, 5월정신의 계승자, 민주의 옹호자로 변했는가 하는것이다. 아니다. 이번엔 윤석열패들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가하여 《5월정신계승》에 대해 떠들며 노족을 부린것은 민주개혁세력들이 《민주화의 성지》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것처럼 그 무슨 《공정》과 《상식》을 떠벌며 민심을 우롱하던 윤석열패당이 동족대결적이며 반인민적인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얼마전 윤석열패당은 저들이 집권기간 추진할 《국정과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평화의 쇼》, 《연극》으로 헐뜯으며 북남공동선언과 합의의 폐기를 주장하였는가 하면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타격》과 같은 강렬한 군사적행동에 대응하겠다고 한것이다. 또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들이며 《대북제재유지》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의 철저한 리행을 주도하고 그 무슨 《북비핵화》와 《북인권문제》를 북남관계정상화의 우선과제로 제기한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외세와 함께 《북핵포기우선론》을 내세우고 북남공동선언과 합의들을 전면부정하면서 반공화국책동과 전쟁대결책동으로 6.15이후 종계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결판낸 리명박역도와 그뒤를 이어 국악무도한 동족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 겨레의 머리속에 전금도 다름없는 추악한 행태가 아닐수 없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분별한 동족대결책동

을 수정하며 로조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부동산정책과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강화정책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한것이 그것을 보여준다.

남조선의 각계층이 윤석열이 《대통령》선거당시 내놓았던 핵심공약들을 사실상 폐기함으로써 하여 취임초기부터 새 《정부》에 대한 민심의 기대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하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데 대해,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는데 대해, 조분민심의 요구를 거의다 무시한데 대해 사죄하고 《무정운명》 방향을 전면수정하라고 강하게 들어대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겨레의 지향, 민심의 요구에 역행하는자들에게 차려질 것이란 비참한 과일뿐이다.

을 수정하며 로조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부동산정책과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강화정책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한것이 그것을 보여준다.

남조선의 각계층이 윤석열이 《대통령》선거당시 내놓았던 핵심공약들을 사실상 폐기함으로써 하여 취임초기부터 새 《정부》에 대한 민심의 기대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하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데 대해,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는데 대해, 조분민심의 요구를 거의다 무시한데 대해 사죄하고 《무정운명》 방향을 전면수정하라고 강하게 들어대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겨레의 지향, 민심의 요구에 역행하는자들에게 차려질 것이란 비참한 과일뿐이다.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면모

최근 남조선내부에서 윤석열의 《대통령실》 구성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나오고 있다.

이번엔 윤석열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보좌진》을 친미사대분자, 동족대결분자로 규정하였다.

《대통령실》의 주요핵심부서인 《국가안보실》 실장과 1차장 겸 《국가안보보좌진》의 사무처장자리에 《한미동맹우선론》을 주장하는 친미분자와 리명박집권시기 반공화국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000》 작성에 직접 참여한 자를 올려앉혀놓는가 하면 2차장 겸 그아래의 국방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에 보수경향이 짙은 륜군사관학교 출신들을 들여앉힌것이 그것

《대통령》선거기간 집권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던 당내의 《공신》들을 몰아내고, 《토사구팽을 당한 기분》이다 등으로 윤석열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권력기구를 어떻게 꾸리는가 하는데 따라 집권층의 성격과 정책방향을 관철할수 있다.

윤석열이 이른바 《국정운영》을 보좌할 《대통령실》을 친미사대, 동족대결분자들과 검찰출신심복들로 꾸린것은 검찰청의 심복들이 결국은 친미사대 《정권》, 동족대결 《정권》, 《검찰공화국》이던 윤석열패들이 추구하는것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쇼공안통치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에 역행하여 이전 보수 《정권》의 반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윤석열 《정권》이 리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민심의 저주와 규탄배격속에 비참한 종말을 고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면모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면모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면모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면모

민심에 역행하는 참모진 구성 놀음

최근 남조선내부에서 윤석열의 《대통령실》 구성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나오고 있다.

이번엔 윤석열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보좌진》을 친미사대분자, 동족대결분자로 규정하였다.

《대통령실》의 주요핵심부서인 《국가안보실》 실장과 1차장 겸 《국가안보보좌진》의 사무처장자리에 《한미동맹우선론》을 주장하는 친미분자와 리명박집권시기 반공화국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000》 작성에 직접 참여한 자를 올려앉혀놓는가 하면 2차장 겸 그아래의 국방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에 보수경향이 짙은 륜군사관학교 출신들을 들여앉힌것이 그것

이전 집권자들은 검찰에 대한 민심의 거부감을 의식하여 검찰출신들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하

《대통령》선거기간 집권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던 당내의 《공신》들을 몰아내고, 《토사구팽을 당한 기분》이다 등으로 윤석열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권력기구를 어떻게 꾸리는가 하는데 따라 집권층의 성격과 정책방향을 관철할수 있다.

윤석열이 이른바 《국정운영》을 보좌할 《대통령실》을 친미사대, 동족대결분자들과 검찰출신심복들로 꾸린것은 검찰청의 심복들이 결국은 친미사대 《정권》, 동족대결 《정권》, 《검찰공화국》이던 윤석열패들이 추구하는것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쇼공안통치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에 역행하여 이전 보수 《정권》의 반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윤석열 《정권》이 리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민심의 저주와 규탄배격속에 비참한 종말을 고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남조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일본과의 관계문제에 대한 각계층의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정의기억연대, 민주문제연구소 등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통상에서 《한일관계 입장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립장문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주문하는 동안 일본의 전수상과 국회의원 100여명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고 현 수상이 공물을 봉납했으며 베를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면모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면모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면모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면모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 《한일관계 입장문》 발표

정의기억연대, 민주문제연구소 등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통상에서 《한일관계 입장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립장문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주문하는 동안 일본의 전수상과 국회의원 100여명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고 현 수상이 공물을 봉납했으며 베를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면모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면모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면모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면모

